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Ego-Resilience of Children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석사과정 양 숙 경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문 혁 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 Student : Suk Kyung Yang
Associate Professor : Hyuk Jun Moon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ego-resilience of children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384 4th, 5th and 6th grade students living in Gyeong-gi and Incheon. Collected data was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 (a) Children's school adjustment varied with their grade in school, birth order and mother's employment. (b) Social capital of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were correlated with one another. (c) Control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 사회 인구학적 변인(Sociodemographic Variables),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of parent-child relationship),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kkok 2- dong, Wnmmi-gu, Buchu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485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단순히 지적기능의 발달과 기술의 습득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동화화고 적응성을 지닌 인격을 형성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경험자로 아동에게 있어 학교 집단에서 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며,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동에게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염미애, 2008).

Lazarus(1976)는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요구가 매우 적절하고, 그 개인에게 대처에 적합한 자원이 있을 때, 그 개인의 문제해결의 노력"이라고 하였다. 김용래와 김태은(2001)는 적응이란 사회의 질서, 규범, 규제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순응해 가는 비교적 소극적 측면과 환경을 개척·변형시켜 개체의 요구에 만족되게 하며 행동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두 가지 측면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병행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정윤과 이경아(2004)는 학교의 규범,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 적응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용래(2000)는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원의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상황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구성요인의 내용들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대체로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칙 등의 공통요인을 지니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후에 높은 공격성 행동과 불안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지어 사회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즉 아동기 사회화의 주요 환경인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로의 적응에 중요한 전조가 되므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은 미래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변인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교적응을 잘 하며(방수산, 2008; 최옥희, 김용미, 2008),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신윤자, 2005)와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정미영, 문혁준, 2007)가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채경림(2004)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미선(2007)의 연구에서는 4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보다 전반적으로 적응을 잘하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교사관계와 수업태도 적응에서는 4학년 학생들이, 교우관계영역에서는 6학년 학생들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과 류현숙(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에 비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은영과 김경혜(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기술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연구(이정윤, 이경아, 2004),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고근종, 2006; 방수산, 2008; 서미화, 2007)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며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변인으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이정윤, 이경아, 2004; 이희숙, 2008; 차유림, 2001)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이정윤, 이경아, 2004; 윤성혜, 2005; 차유림; 2001)가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교육적인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양정호, 2007).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구조와의 관계이다(책무성, 기대감, 신뢰성). 둘째, 사회적 자본은 다른 이와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에게 자원을 제공한다(관계 망, 정보 채널과 규범). 셋째, 개인의 목표 성취로써 사회적 자본은 이용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속성을 지닌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모나 지역사회에 의하여 인지되어지는 사회적 규범과 믿음, 부모 외의 가족 내 다른 성인들의 존재(계부모, 양부모 등) 및 그들과의 유대감과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신뢰감 등이 포함된다.

또한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이란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행위자(개인, 그룹, 또는 집단)가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질적 · 양적 자원이며 그것은 사회적 연결망 안에 위치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형태를 지니면서 사회 속의 관계적 맥락(Social Context)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성이 전제되고 ,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의무감과 기대, 정보의 소통, 그리고 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으로는 가정, 직장, 학교, 동료, 지역사회 문화기관,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영역이 있다. 학생의 가정에 의해서 창출된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원보다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영향원이 된다. 이는 성장기에 있어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안우환 (2004)은 성장시절의 풍부한 부모와의 대면과 대화, 애정, 사랑 등 가족의 분위기 등은 학생이 장차 가지게 될 사회적 자본의 초석이 되는 교육적인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다은(2007)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에서의 적응과 성취에는 가정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가정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의 장인 동시에 부모와의 만남이 교육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연구와 고찰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안우환(2006)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부모-자녀의 관계 측면에서 "사회 구조 내에 위치한 가족 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 목적 달성 행위를 촉진하는 매커니즘으로 이에는 부모의 인간자본, 부모의 교육적 관심, 대화 및 지원,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학생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개입, 부모의 교육적 기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얻게 되는 유무 형의 자원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개념 중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가족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자본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얻게 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하겠다. 이에는 학교생활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화, 학교교육지원을 위한 활동참여,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경근, 2000; 안우환, 2004; 양정호, 2007; 이다은, 2007; 이정원, 2007)이 주를 이루며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의 중요성은 크다(심미옥, 2003). 아울러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자녀와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성장발달과 학업의 측면에서는 효과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사이의 연대라는 관계성에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인변인 중 자아탄력성은 Rutter(1985)와 Garmezy(1983)가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지향적인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용어를 처음 언급한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된 상황적 요구에 대해 특히,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경직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Block & Gjerde, 1990).

Klohnen(1996)은 인간 적응력에서의 개인차를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자아 경직적인 사람들은 이런 조절능력이 낮아서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Block과 Block(1980)의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에 대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력에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을 하며, 성격이 안정적이어서 덜 불안해하고 덜 의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감이 있어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융통성있게 적응할 뿐 아니라, 정서의 표현이 적절하고 공감적이어서 또래관계가 원만하며, 인지적으로도 영리하다고 하였다. O' Connell-Higgins(서미화, 2008, 재인용) 또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evocative)인 접근을 하고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유아 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과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아 탄력성과 아동의 성차와 관련된 연구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권지혜, 2006), 이용준(2004)은 탄력적인 집단과 적응집단에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 아동의 친

밀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Masten, Best, & Garmezy, 1990; Rutter, 1990),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인성지향적일 때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허태연, 2008).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신정희, 2007; 하명선, 2006; 허태연, 2008)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정서적 방임, 빈곤, 가정불화 부모 등의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동 중 발달과 적응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한 아동들은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고근종, 2006; 김수정, 2008; 송미령, 2005)도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고위험 상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한 능력을 발휘하며, 외상적 생활경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O' Dougherty, Wright, & Mastenm, 1997).

이처럼 아동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첫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보고 특히, 그 안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아동의 보다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 순위, 모 취업여부)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 탄력성,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아동의 학교적응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셋째, 사회 인구학적 배경,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인 발달이 만 10세(4학년)이후부터 형성된다는 근거(Block & Kremen, 1996)와 Erikson의 사회 · 심리 발달 단계 중 아동기(6~11세)는 '자아 결정기' 라고 하는 이론에 따라 경인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12월 10일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타당성과 변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한 결과 연구도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8년 12월 1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배부 ·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배부 설문지 402부를 모두 회수 하였고, 이 중 누락 · 이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8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남아는 전체 193명(50.3%), 여아는 191명(49.7%)으로 비슷하였으며. 학년별로는 6학년이 152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5학년 141명(36.7%), 4학년 91명(23.7%)순이었다. 형제 수를 살펴보면 2명인 아동이 279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인 아동이 72명(5,7%), 외동인 아동이 33명(8.6%)이었다. 형제 순위는 둘째가 166명(43.2%), 첫째가 163명(42.4%), 외동아 33명(8.6%), 셋째 이하가 22명(5.7%)순이었다. 연구 대상자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203명(52.9%), 고등학교 이하 88명(22.9%), 대학원 이상 24명(6.3%), 전문대학 졸업 11명(2.9%) 순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80명(46.9%), 고등학교 이하 124명(32.2%), 대학원 이상 16명(4.2%), 전문대학 졸업 7명(1.8)%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취업모가 213명(55.5%)으로 비취업모 165명(43%)보다 더 많았다. 아동들이 지각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384)

	구분	빈도	%
성별	남	193	50.3
	여	191	49.7
학년	4학년	91	23.7
	5학년	141	36.7
	6학년	152	39.6
형제 수	외동	33	8.6
	2명	279	72.7
	3명이상	72	18.8
출생순위	외동	33	8.6
	첫째	163	42.4
	둘째	166	43.2
	셋째이하	22	5.7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이하	88	22.9
	전문대학 졸업	11	2.9
	대학교 졸업	203	52.9
	대학원 이상	24	6.3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이하	124	32.2
	전문대학 졸업	7	1.8
	대학교 졸업	180	46.9
	대학원 이상	16	4.2
어머니 직업유무	직업 있음	213	55.5
	직업 없음	165	43.0
경제사정	상	56	14.6
	중	304	79.2
	하	20	5.2

는 경제 사정을 살펴봤을 때 중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304명(79.2%)이었고, 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56명(14.6%)이었으며 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20명(5.2%)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안우환(2006)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질문지(Parent-Child Relations Social Capital Questionnaire: PCRSCQ)'를 사용하였다. PCRSCQ는 교육적 관심과 대화 8문항(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학교교육활동 참여 7문항(예: 어머니는 교통지도 등의 학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다.), 기대와 훈육 10문항(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으로 총 25문항이다.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교육적 관심과 대화 .77, 학교교육활동 참여 .64, 부모의 기대와 훈육 .6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주소영과 이양희(2007)가 개발한 아동용 탄력성척도(RSC)를 사용하였다. RSC는 자기 효능감(self-confidence) 8문항(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의 인내 8문항(예: 나는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도 잘 회복하는 편이다.), 긍정적 지지관계 4문항(예: 나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해내었을 때 그 일로 칭찬 받는다.), 통제력 6문항(예: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잘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본다.), 자발성 4문항(예: 나는 활기차고 명랑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자기 효능감 .83, 부정적 감정의 인내 .79, 긍정적 지지관계 .68, 통제력 .71, 자발성 .6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 측정을 위하여 김용래(1993)가 구성하여 1995년에 수정하고 2000년에 다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하여 보다 현실에 맞도록 수정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환경적응 9문항(예: 나는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 학교교사적응 9문항(예: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한다.), 학교수업적응 8문항(예: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 학교친구적응 8문항(예: 나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낸다.), 학교생활적응 7문항(예: 나는 학교생활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잘 따른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환경적응 .89, 학교교사 적응 .91, 학교수업적응 .84, 학교친구적응.80, 학교생활적응 .8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 순위, 모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 탄력성, 학교적응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에 있어 차이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중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 부분에서 부모의 기대와 훈육(M = 2.93, SD = .41)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교육적 관심과 대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M = 2.96, SD = .52) 나타났으며, 부모의 기대와 훈육(t = 2.25, p 〈 .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 중 남학생(M = 3.07, SD = .44)과 여학생(M = 3.14, SD = .49)모두 통제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지지관계(t = −2.12, p 〈 .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적응에 있어서 남학생은 학교환경(M = 2.86, SD = .56)에 가장 절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M = 2.94, SD = .52)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한

〈표 2〉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N* = 384)

		남자(*n* = 193)	여자(*n* = 191)	*t*
		M(SD)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87(.48)	2.96(.52)	−1.76
	교육활동참여	2.07(.47)	2.00(.48)	1.39
	부모의 기대와 훈육	2.93(.41)	2.83(.45)	2.25*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2.95(.47)	3.00(.53)	−1.04
	부정적 감정의 인내	3.00(.48)	3.00(.54)	.19
	긍정적 지지관계	2.96(.57)	3.08(.53)	−2.12*
	통제력	3.07(.44)	3.14(.49)	−1.57
	자발성	3.04(.56)	3.12(.58)	−1.45
학교적응	학교환경적응	2.86(.56)	2.82(.61)	.53
	학교교사적응	2.81(.61)	2.88(.66)	−1.08
	학교수업적응	2.67(.55)	2.66(.61)	.25
	학교친구적응	2.80(.50)	2.86(.55)	−1.12
	학교생활적응	2.85(.47)	2.94(.52)	−1.85

*$p < .05$.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에 있어 차이와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의 하위 영역인 교육적 관심과 대화(F = 10.53, $p < .001$), 교육활동참여(F = 4.29, $p < .05$)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에 있어서는 자기 효능감(F = 4.14, $p < .05$), 부정적 감정의 인내(F = 4.26, $p < .05$), 긍정적 지지관계(F = 5.85, $p < .01$), 자발성(F = 4.05, $p < .01$)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학교환경적응(F = 27.25, $p < .001$), 학교교사적응(F = 26.74, $p < .001$), 학교수업적응(F = 21.93, $p < .001$), 학교친구적응(F = 5.37, $p < .01$), 학교생활적응(F = 14.45, $p < .001$)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관계의 하위 영역인 교육적 관심과 대화에서 4학년(M = 3.07, SD = .48)과 5학년(M = 2.96, SD = .47)이 6학년(M = 2.79, SD = .51)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참여에서 4학년(M = 2.13, SD = .50)이 6학년(M = 1.96, SD = .48)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4학년(M = 3.09, SD = .58)이 6학년(M = 2.90, SD = .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의 인내에서도 4학년(M = 3.12, SD = .56)이 6학년(M = 2.92, SD = .43)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지지관계에 있어서는 4학년(M = 3.13, SD = .55)과 5학년(M = 3.07, SD = .57)이 6학년(M = 2.90, SD = .52)보다 높은 점수를, 자발성에서 4학년(M = 3.18, SD = .64)이 6학년(M = 2.98, SD = .53)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소인 학교환경적응에서는 4학년(M = 3.14, SD = .57), 5학

〈표 3〉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N* = 384)

		4학년(*n* = 91)	5학년(*n* = 141)	6학년(*n* = 152)	*F*
		M(SD)	*M(SD)*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3.07(.48)[a]	2.96(.47)[a]	2.79(.51)[b]	10.53***
	교육활동참여	2.13(.50)[a]	2.06(.44)	1.96(.48)[b]	4.29*
	부모의 기대와 훈육	2.89(.46)	2.91(.41)	2.85(.43)	.78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	3.09(.58)[a]	2.98(.50)	2.90(.45)[b]	4.14*
	부정적 감정의 인내	3.12(.56)[a]	3.00(.55)	2.92(.43)[b]	4.26*
	긍정적 지지관계	3.13(.55)[a]	3.07(.57)[a]	2.90(.52)[b]	5.85**
	통제력	3.16(.53)	3.13(.47)	3.04(.42)	2.47
	자발성	3.18(.64)[a]	3.12(.55)	2.98(.53)[b]	4.05**
학교적응	학교환경적응	3.14(.57)[a]	2.90(.57)[b]	2.61(.52)[c]	27.25***
	학교교사적응	3.17(.56)[a]	2.90(.61)[b]	2.60(.61)[c]	26.74***
	학교수업적응	2.94(.62)[a]	2.71(.55)[b]	2.46(.50)[c]	21.93***
	학교친구적응	2.95(.57)[a]	2.86(.55)	2.73(.47)[b]	5.37**
	학교생활적응	3.08(.52)[a]	2.93(.50)[a]	2.75(.44)[b]	14.45***

a, b, c: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 < .05$. **$p < .01$. ***$p < .001$.

〈표 4〉 출생 순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N = 384)

		외동 또는 첫째(n = 196)	둘째 이상(n = 188)	t
		$M(SD)$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96(.51)	2.87(.49)	1.82
	교육활동참여	2.09(.45)	1.97(.49)	2.36*
	부모의 기대와 훈육	2.87(.40)	2.90(.46)	-.74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2.98(.53)	2.98(.47)	.07
	부정적 감정의 인내	3.01(.54)	2.98(.48)	.47
	긍정적 지지관계	2.98(.54)	3.05(.56)	-1.24
	통제력	3.10(.50)	3.10(.43)	.07
	자발성	3.08(.61)	3.08(.52)	.08
학교적응	학교환경적응	2.86(.59)	2.82(.59)	.71
	학교교사적응	2.84(.66)	2.85(.61)	-.20
	학교수업적응	2.69(.60)	2.64(.55)	.93
	학교친구적응	2.85(.55)	2.81(.51)	.78
	학교생활적응	2.95(.51)	2.84(.48)	.20*

*p < .05.

년(M = 2.90, SD = .57), 6학년(M = 2.61, SD = .52)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교사적응에서는 4학년(M = 3.17, SD = .56), 5학년(M = 2.90, SD = .61), 6학년(M = 2.60, SD = .61)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에서는 4학년(M = 2.94, SD = .62), 5학년(M = 2.71, SD = .55), 6학년(M = 2.46, SD = .50)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친구적응에서는 4학년(M = 2.95, SD = .57)이 6학년(M = 2.73, SD = .47)보다 높은 점수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4학년(M = 3.08, SD = .52)과 5학년(M = 2.93, SD = .50)이 6학년(M = 2.75, SD = .44)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출생 순위에 따라 외동 또는 첫째아동과 둘째이상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에 있어 차이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동 또는 첫째아가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인 교육적 관심과 대화(M = 2.96, SD = .51)와 교육활동참여(M = 2.09, SD = .45)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부모의 기대와 훈육에서는 둘째이상의 아동(M = 2.87, SD = .49)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교육활동참여(t = 2.36, p < .05)에서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부정적 감정의 인내에서는 외동 또는 첫째(M = 3.01, SD = .54)가, 긍정적 지지관계에서는 둘째이상의 아동(M = 3.05, SD = .56)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기효능감, 통제력, 자발성에서는 같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환경적응(M = 2.86, SD = .59), 학교수업적응(M = 2.69, SD = .60), 학교친구적응(M = 2.85, SD = .55), 학교생활적응(M = 2.95, SD = .51)에서는 외동 또는 첫째가, 학교교사적응에서는 둘째이상의 아동(M = 2.85, SD = .61)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소인 학교생활적응(t = .20,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에 있어 차이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N = 384)

		취업모(n = 213)	비취업모(n = 165)	t
		$M(SD)$	$M(SD)$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87(.49)	3.00(.50)	-2.53*
	교육활동참여	1.95(.48)	2.15(.44)	-4.00***
	부모의 기대와 훈육	2.85(.42)	2.94(.44)	-2.21*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2.94(.45)	3.03(.56)	-1.67
	부정적 감정의 인내	2.97(.51)	3.03(.52)	-1.26
	긍정적 지지관계	2.99(.56)	3.05(.54)	-1.06
	통제력	3.09(.46)	3.13(.48)	-.72
	자발성	3.04(.56)	3.14(.57)	-1.64
학교적응	학교환경적응	2.78(.60)	2.93(.56)	-2.48*
	학교교사적응	2.81(.63)	2.89(.65)	-1.16
	학교수업적응	2.62(.56)	2.72(.61)	-1.55
	학교친구적응	2.81(.54)	2.87(.53)	-1.45
	학교생활적응	2.85(.49)	2.95(.51)	-1.89

*p < .05. ***p < .001.

〈표 6〉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N = 38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교육적 관심과 대화	1												
2 학교참여	.36***	1											
3 부모의 기대와훈육	.43***	.37***	1										
4 자기효능감	.48***	.25***	.36***	1									
5 부정적 감정의인내	.49***	.23***	.33***	.77***	1								
6 긍정적지지	.57***	.21***	.38***	.54***	.58***	1							
7 통제력	.51***	.18***	.32***	.70***	.68***	.59***	1						
8 자발성	.46***	.24***	.32***	.65***	.64***	.53***	.63***	1					
9 환경적응	.52***	.23***	.30***	.46***	.51***	.52***	.47***	.47***	1				
10 교사적응	.45***	.21***	.29***	.41***	.42***	.54***	.48***	.40***	.64***	1			
11 수업적응	.55***	.30***	.31***	.51***	.51***	.48***	.55***	.49***	.61***	.68***	1		
12 친구적응	.47***	.26***	.36***	.53***	.56***	.60***	.58***	.59***	.58***	.54***	.57***	1	
13 학교 생활적응	.57***	.33***	.34***	.61***	.59***	.53***	.65***	.57***	.68***	.63***	.73***	.66***	1

***p 〈 .001.

모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모든 부분에서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 아동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교육적 관심과 대화(t = −2.53, p 〈 .05), 교육활동참여(t = −4.00, p 〈 .001), 부모의 기대와 훈육(t = −2.21, p 〈 .05)에서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 아동보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 아동보다 학교적응 하위요소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학교환경적응(t = −2.48, p 〈 .05)에서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들 간에는 .54~.73의 상관을 보였다. 학교 환경적응의 하위요소인 환경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교육적 관심과 대화(r = .52, p 〈 .001)와 긍정적 지지(r = .52, p 〈 .001)이며, 교사적응에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긍정적 지지(r = .54, p 〈 .001)였다. 수업적응에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교육적 관심과 대화(r = .55, p 〈 .001)와 통제력(r = .55, p 〈 .001)이고, 친구적응에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긍정적 지지(r = .60, p 〈 .001)이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통제력(r = .65, p 〈 .001)이었다.

3.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사회인구학적변인(학년, 형제 수, 출생순위),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1.17~3.30), TOL는 0.1이상(.30 ~.85)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7〉에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적응 중 학교환경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46%, 학교교사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42%, 아동의 학교수업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49%, 학교친구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5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59%였다. 학교환경적응에는 학년, 교육적 관심과 대화,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사적응에는 학년,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했다. 학교수업적응에는 학년, 교육적 관심과 대화, 교육활동참여, 통제력변인이 그리고 학교친구적응에는 부모의 기대와 훈육,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는 학년, 교육적 관심과 대화, 교육활동참여, 통제력, 자발성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7〉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384)

		학교 환경적응	학교 교사적응	학교 수업적응	학교 친구적응	학교 생활적응
		β	β	β	β	β
	학년	−.24***	−.28***	−.19***	−.05	−.10*
	형제 수	.01	.04	.01	−.06	.00
	출생순위	−.04	−.01	.01	−.04	−.07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자본	교육적 관심과 대화	.23***	.10	.26***	.00	.21***
	교육활동참여	.00	.03	.11**	.05	.11*
	부모의 기대와 훈육	.03	.05	−.00	.11*	.03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02	.01	.03	.01	.06
	부정적 감정의 인내	.19*	−.02	.07	.08	.08
	긍정적 지지관계	.15*	.28***	.02	.27***	.03
	통제력	.10	.21**	.27***	.16*	.32***
	자발성	.06	.01	.09	.22***	.12*
	R^2	.46	.42	.48	.51	.59
	F	20.40***	16.17***	21.77***	24.26***	31.17***

*p < .05. **p < .01. ***p < .001.

하지만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형제 수와 출생순위는 학교적응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인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배경(아동의 성별, 학년,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모 취업여부)에 따른 학교적응간의 차이와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자본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회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환경적응과 학교수업적응에서는 남아가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왔으나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장영애, 박정희, 2008; 정미영, 문혁준, 2007)와 일치하지만 여아가 학교적응을 더 잘 하며, 특히 학교환경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을 도 잘한다는 연구(추미애, 박아청, 2006)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적응에는 여학생이 더 잘 하지만 교우관계에서는 남학생이 적응을 잘 한다는 박미선(2007)의 하위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차를 발견한 연구들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남녀 학생의 성격적 특징을 바탕에 두고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남학생들은 학교 환경적응에서 순응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이현림과 천미숙(2003)의 연구와 여학생들은 성격이 차분하여 대인관계나 학교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는 설재연(2006)의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양성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남녀의 성격적 특징이 학교적응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 보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모든 영역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낮을수록 교사의 지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채경림(2004)의 연구와 일치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관계와 수업태도에 적응을 잘 하지만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적응을 잘 한다는 박미선(2007)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김승미(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학교적응이 낮았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자은(2000)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졌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부과되는 과제의 양이 많아지고 시험에 대한 부담에 의한 내적 긴장이나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 심리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학년별로 나타나는 아이의 신체적 · 심리적 특징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인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특징을 잘 이해함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만 외동 또는 첫째 이상의 아동이 둘째 이상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형제순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또는 외동에게 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의 교육활동참여에 의해서 학교생활 적응에 참여가 나타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출생 순위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가 학교생활적응에서만 나타났지만, 아동의 학교적응을 연구할 때 출생순위집단이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집단을 연구한다면 부모들에게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비취업모의 아동이 학교적응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아동보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이경님(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취업모의 아동은 학교환경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에게 고독감과 불안감을 주어 낮은 학업 성취욕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Ethugh, 1993),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희수, 2003). 따라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과는 달리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아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 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가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취업모는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동과 대화와 학교 활동에도 많이 참석함으로써 아동이 부모의 지지를 더 받고 부모의 기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취업모와 취업모의 아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취업모도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와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더 이상 아동에 대한 주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책임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사회적자본과 자아탄력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부모-자녀의 사회적자본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크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교적응 하위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 중 교육적 관심과 대화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아탄력성하위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도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 중 교육적 관심과 대화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가정의 영향력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적응행동이 개인적 요인과 환경 간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Lazarus, 1961), 학교적응에 있어 개인스스로가 적응해야 하는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인 통제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 수와 형제순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대사회 특징 중 하나인 자녀 수 감소로 인하여 자녀 수가 많았던 예전과는 달리 아동은 부모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형제의 영향보다는 부모의 영향이나 개인 내적인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중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교육적 관심과 대화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적 관심과 대화는 학교환경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윤과 이경아(2004)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며 특히, 학교 수업적응에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와 서로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수록 자녀는 학교수업에 충실했다(장영애, 박정희, 2008)는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부모와 아동의 대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교수업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과 학교는 자녀교육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학교 참여가 부족한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학교 참여에 따른 학교 적응의 효과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부모의 기대와 훈육이 학교친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기대와 훈육을 통하여 학교친구적응을 잘 한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해결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부모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학교 참여, 기대와 훈육으로 인하여 아동은 원만하게 학교적응을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인 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에 영향을 주었고, 긍정적 지지관계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성은 학교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감정 인내는 학교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이 유연하면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고근종, 2006; 서미화, 2008, 정미영, 문혁준, 2007)를 설명해 주었고, 학교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통제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발달과 적응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한 아동들은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고근종, 2006; 김수정, 2008; 송미령, 2005)와 같이 개인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적 · 심리적 변화로 인해 불안과 갈등, 내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 나간다면 학교적응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변인 뿐 아니라 부모 변인들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 영역별 적응에 대한 차이도 생각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으로 부모 변인인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아동 개인 변인인 자아탄력성만을 다루었으므로 아동의 학교적응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연령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시각에서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심층면접을 통한 후속 연구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객관적인 평가가치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적응 등 을 병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여 아동의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을 통하여 미래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청소년기를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고근종(2006). 저소득가정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 ·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결식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용래(2000). 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17**, 3-37.

김용래, 김태은(2001). 학업/비학업적자아개념,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색. **교육연구논총(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18**, 3-46.

김지영, 류현숙(2003).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과 의 관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9**(2), 198-205.

김희수(2003).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미선(2007).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방수산(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미화(2008).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설재연(2006). 학생의 교사신뢰,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미령(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윤자(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정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333-358.

안우환(2004).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우환(2006).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19**(1), 217-235.

양정호(2007). 한국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 KYPS 초등자료 분석. **초등교육연구, 20**(1), 335-353.

염미애(2008).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관한 종단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윤성혜(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님(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6**(5), 211-224.

이다은(2007).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의 사회적 자본 영향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용준(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행 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영, 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이정원(2007).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윤,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이현림, 천미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511-541.

이희숙(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영애,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정미영, 문혁준(2007)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주소영, 이양희(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4~6학년용. **아동학회지, 28**(2), 91-113.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채경림(2004).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청구논문.

최옥희, 김용미(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 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연구, 17**(2), 275-285.

추미애, 박아청(2006).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271-288.

하명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태연(2008).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자아 탄력성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lock, J., & Gjerde, P. F.(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In J. Roff, A. S., Mastern, D. Dicchetti, K. H. Neu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pp. 334-3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pp.39-101). Hillsdale, NJ: Erlbaum.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Ethugh, C.(1993). Maternal Employment: Effect on Children. In J. Frankel(Ed.), *The employment mother and family context*(pp. 68-88). New York: Springer.

Garmezy, N.(1983). Stress of childhood. In N. Garmezy and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43-84). New York: Mc Graw-Hill.

Kl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Lazarus, R. S.(1961). *Adjust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McGrow-Hill.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3rd ed)*. New York: Springer.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O'Dougherty, M., Wright, F. S., & Masten, A. S.(1997).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In J. D, Noshpitz, S. Greenspan. S. Wieder, & J. Osofsky(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pp. 202-224). New York: John Wiley & Sons.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Rutter, M.(1990).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접 수 일 : 2009년 4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30일